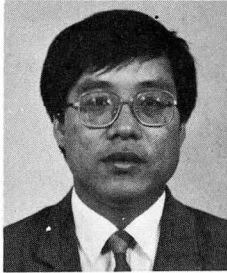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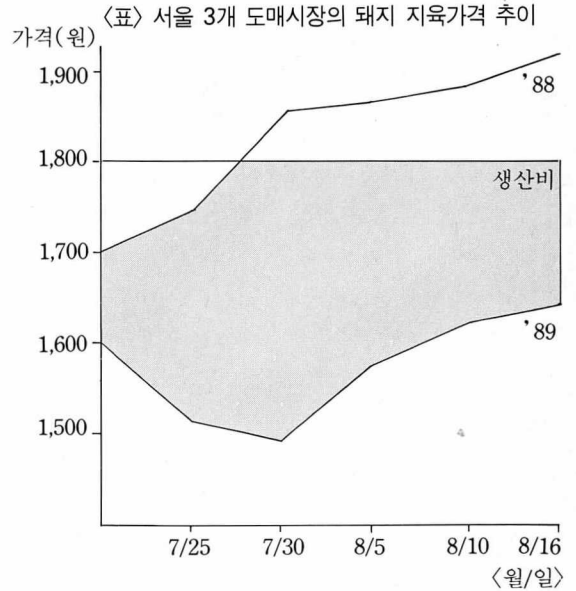


사육 두수 증가로 약보합세 지속전망



함 병 은
(본회 지도부)



올들어 최저 하락세를 보였던 7~8월의 돼지시세는 8월 중순 이후 약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9월에는 다시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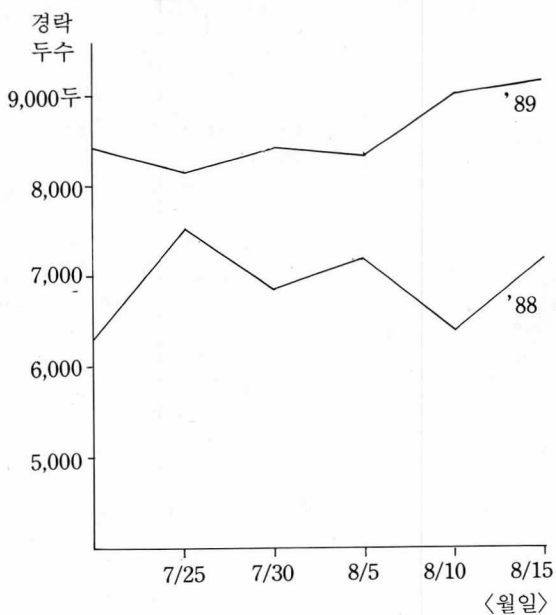
이런 이유는 7~8월은 일년중 가장 무더운 계절이고, 또 긴 장마로 인해 육류보다는 과일 등 신선한 상품을 더 선호하고, 특히 말복 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늘어 대체재인 돼지고기 소비가 상대적으로 침식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양돈경기 동향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8개 도매시장의 시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3개 도매시장의 총경락 두수는 20만3천56두로서 전년 동기의 16만2천5백65두보다 24.9%가 증가되었으나, 지육가격은 1천5백74원으로 전년 동기의 1천8백44원보다 14.6%가 하락되었다. 또한 최고가격은 1천7백5원(8월 14일), 최저가격은 1천4백71원(8월 1일)을 보였다.

인천지역은 같은 기간동안에 2만9천40두가 경락되었고, 평균 지육가격은 1천6백1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경

〈표〉 서울3개 도매시장의 돼지 경락두수 상황



락두수는 18.5%가 늘은 반면 지육가격은 15.9% 감소되었으며, 최고시세는 1천6백76원(8월 11일), 최저시세는 1천5백46원(8월 7일)을 기록하였다.

대구지역을 보면, 신홍산업에서 경락된 총마리수는 2만5천5백54두, 지육가격은 1천6백61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천2백37두(5.1%)가 증가했다. 지육가격은 2백15원(11.5%)이 하락되었고, 최고시세는 8월 7일에 1천9백66원, 최저시세는 7월 25일에 1천4백76원이었다.

강도 부산지역에 공급되는 돼지시황을 보면 지육가격은 최고 1천6백77원(7월 31일)과 최저 1천3백47원(7월 25일)으로 평균 가격은 1천5백55원이며, 전년 동기의 1천8백51원보다 2백70원(16%)이 떨어졌다. 총 경락두수는 5만7천7백41두로 전년 동기보다 4천5백39두(8.5%)가 증가되었다.

광주지역을 보면, 총 경락두수는 1만2백48두로서 전년 동기보다 2천6백75두(35.3%)가 늘었으나, 지육가격은 최고시세가 1천5백68원(8월 12일) 최저시세는 8백49원(7월 20일), 평균가격 1천3백42원에 거래되었고,

전년 동기보다 3백38원(20.1%)이 떨어졌다.

또한, 전국의 산지 성돈가격은 9만1천원으로 지난해의 10만8천원보다 1만7천원(15.7%)이 하락되었고, 자돈가격은 2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만9천원보다 8천원(27.6%)이 내렸다.

한편, 6월말 현재 총 도축두수는 4백24만8천두로서 전년 같은기간의 3백53만7천두보다 20.1% (71만1천두)가 증가되었다. 월별 도축두수를 보면 1월 71만9천두, 2월 61만4천두, 3월 72만2천두, 4월 69만두, 5월 76만5천두, 6월 73만8천두이다. 그리고 돈육통조림 수입은 '89년 5월말 현재 1천61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백13%가 늘어났다.

돈육수출은 7월말 현재 4천7백87톤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천1백66톤(32.2%)이 증가되었고, 이중 7월은 8백74톤으로 전월 동기보다 오히려 5.5%(51톤)가 줄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4.7%(39톤)가 늘었다.

양돈경기 전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9월의 돈가도 7~8월과 마찬가지로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9월은 무더위와 장마가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의 문턱이며, 추석이 들어있어 소비가 7~8월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육두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돈육수출은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추석을 기점으로 그동안 비축되었던 물량과 수입쇠고기 소비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노사분규, 교원노조 등 정치·경제적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돈육통조림의 수입 등으로 육류소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돈육통조림 수입을 절제하고, 정부는 수입쇠고기 판매를 중지하며, 생산자는 모돈감축을 스스로 함으로써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